

# 전주천 섯다리의 주민의식 및 이용성취도 평가\*

- 중요도-성취도분석을 중심으로 -

김상욱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

## User's Evaluation on the Supdari in Jeonju-River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Kim, Sang-Wook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user's attitude to the supdari(a traditional wooden bridge) itself and the supdari project, and evaluated the quality of user's satisfaction of the bridge in Jeonju-River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User's evaluation was achiev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d total 267 pieces of subjec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updari users didn't realize the supdari construction was performed as a governance project, and didn't consider the supdari as one of landmarks of Jeonju-River. But local people thought that the supdari is one of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to reminds their hometown's landscapes and the supdari project can make the community network vitalize. Through the IPA, attributes with relative dissatisfaction were 'landscape facilities like small squares and rest area', 'safety facilities like handrails and guardrails' and width of the supdari. To make the supdari as a traditional landmark in Jeonju-River, an open space based on the tradition and ecological education has to be constructed near the bridge. And in the supdari design, especially handrails system and the bridge width has to be improved to enhance the user's safety.

*Key Words : User's Satisfaction, Supdari,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Tradi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주천 여울목 섯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섯다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및 이용 성취도를 조사함으로써, 섯다리가 전통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물로서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섯다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에서의 섯다리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성취도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은 섯다리사업이 민관협력 사업임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섯다리 축제에 대한 참여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섯다리 이용자들은 섯다리를 고향마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이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섯다리를 전주천의 랜드마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섯다리의 이용과 관련한 14개

\* 이 논문은 2009년도 원광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Kim, Sang-Wook,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Wonkwang University, Jeonbuk 570-749, Korea. Phone : +82-63-850-6827, E-mail : laughi@wku.ac.kr

항목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쉼다리 주변 조정시설, 쉼다리의 폭원, 경고안내판 및 통제시설 및 쉼다리 난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쉼다리 및 주변공간의 장소성 부여를 위해 향후 쉼다리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및 생태교육을 담을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공간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쉼다리를 건너거나 경관 및 생태자원 감상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이용자 만족도, 쉼다리, 중요도-성취도 분석, 전통문화시설

## I. 서론

최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역 고유의 전통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계기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 전통문화시설의 설치는 지역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게 하여 문화·역사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2008년 처음 조성된 이래, 여울목 쉼다리는 도시 내 하천으로 양분된 지역을 연결하는 통행의 수단일 뿐 아니라 주민 교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문화 시설물로는 장승, 솟대, 정자, 정자목, 쉼다리 및 고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일시적 감상을 위한 전시용 또는 축제 등에 일시적으로 등장하여 체험해 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쉼다리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의 상징물로서 고향마을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전통적 경관시설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천 여울목 쉼다리는 감상 및 체험을 위한 전통문화 시설물임과 동시에 운동, 통행, 경관감상 및 생태자원 교육이라는 생활문화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쉼다리는 일회성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설치와 철거 및 이를 기반으로한 축제로 이어지는 반복적 사업의 산물로서, 유역공동체를 이어주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상욱과 김길중, 2010). 이에 본 연구는 전주천 여울목 쉼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쉼다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및 이용 성취도를 조사함으로써, 쉼다리가 전통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물이면서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쉼다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에서의 쉼다리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성취도 분석을 위해서는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향후 쉼다리의 실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필수생활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점들을 보다 더 고려해야 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II. 이론적 고찰

### 1. IPA 분석

IPA 분석은 Martilla and James(1977)에 의해 고안된 이래 마케팅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경영주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속성들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중요도) 속성들의 관리효과(성취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평가분석 기법이다(김상욱, 2006). IPA 분석은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조사한 뒤, 이용 전에는 각 속성의 중요도를, 이용 후에는 성취도를 이용자 스스로가 평가하게 하여,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기법이다(윤선영, 2005). 중요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실행격자의 4분면 상에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으며, 4분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I영역(지속적 노력 필요)은 이용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만족스럽게 반영되어 있는 속성들로서 현재와 같은 노력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II영역(우선시정 필요)은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영이 잘 되어 있지 못한 속성들로서 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다. III영역(저 우선순위)은 이용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족스럽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속성들로서 현재 수준 이상의 노력 투입은 불필요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IV영역(과잉노력 지양)은 이용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족스럽게 반영되고 있는 속성들로서 현재의 노력을 다른 속성, 주로 '우선시정 필요' 속성에 투입해야 하는 것들이다(Martilla and James, 1978).

중요도(I)	높음	II사분면 우선시정 (Concentrate here)	I사분면 지속적 노력 (Keep up the good work)
	낮음	III사분면 저 우선순위 (Low priority)	IV사분면 과잉노력 (Possible Overkill)
		낮음	높음

성취도(P)

그림 1. IPA 분석 매트릭스  
(자료: 박상현 등(2008), Tonge and Moore(2006))

## 2. 관련분야 기존연구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IPA 관련 연구로 이동근과 김보미(2010)는 공원시설의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30개 항목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Taplin(2011)은 호주 캐버샴 야생동물원(Caversham Wildlife Park)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17개 항목에 대해 IP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Tonge and Moore(2007)는 호주해양공원의 관리를 위한 이용객 만족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시설에 대한 IPA 관련 연구는 산책로, 탐방로 또는 등산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종선 등(2010)은 한밭수목원 동원 및 서원 산책로에 대한 이용객 평가를 실시하였고, 김상오(2005)는 무등산도립공원 내 등산로의 관리 상태를 총 26개 항목으로 IPA 평가를 실시하였다. 탐방로 환경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조우 등(2009a)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환경해설 매체라 할 수 있는 자원 및 이용안내판, 자연관찰로 해설판 및 수목이름 해설판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이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우 등(2009b)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숲길의 보행시설에 대해 1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는데, 주요 항목으로는 휴식시설의 이용편리성과 안전성, 핸드레일의 안전성과 편리성, 안내사인 내용 이해 용이성, 노푼의 적정성, 경계안전간의 높이 적절성 및 포장재료의 안전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용철 등(2002)은 가야산국립공원 시설물의 IPA 평가를 위해 크게 주차장의 4항목, 화장실의 5항목, 등산로의 5항목, 안내판 4항목, 탐방로의 6항목, 안전시설의 2항목 그리고 매표소의 1항목으로 총 7개 시설의 27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시설에 대한 연구로 김상오(2006)는 국립공원 관찰로의 자기안내식 해설판 디자인 속성을 결정하고자 IPA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는 해설판 높이의 적절성, 글자크기의 적절성, 글자수의 적절성 등 30개 항목이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등산로와 국립공원 내 탐방로의 연계시설물인 안내판, 포장재료 등에 대한 연구들로서, 추가적인 시설을 조성할 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질적인 보존과 이용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방법으로 IPA 분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시설물의 이용 성취도에 IPA의 적용가능성과 잠재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쉼다리 분석에 활용 시 이용의 성취도를 최대화하고 질적인 개선을 거둘 수 있는 세부 요건이 무엇인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연구대상지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1) 쉼다리 복원

새마을운동 이후 사라졌던 쉼다리는 2000년 이후 몇몇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원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강원도 영월의 주천면 판운 쉼다리를 비롯해 함양, 정선, 횡성, 김천, 동해, 양양, 공주, 무주, 괴산 등지의 지역에서 쉼다리가 복원되거나 재등장하고 있다(김상욱과 김길중, 2010). 이들 쉼다리들을 유형화해 보면, 첫째, 영월(단종문화제 홍보를 겸한 동강 쉼다리), 동해 및 홍천 등의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복원 노력을 통해 끊긴 맥을 이어보자는 취지에서 복원된 경우로, 그 희소성과 전통 문화에 대한 향수에 기인해 쉼다리 자체가 명소화되었으며, 이후에 이들 쉼다리와 연계하여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지역축제에 소품처럼 동원되어 일정기간동안 관광객들의 체험을 위한 쉼다리의 유형으로 무주 남대천 반딧불 축제 쉼다리, 공주 금강변의 백제문화제 쉼다리, 함양의 물레방아 축제 쉼다리 및 안흥전뽕축제 쉼다리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설치된 쉼다리의 재원 또한 다양한데, 동강 쉼다리의 경우 길이 250m에 폭 2.2m, 홍천군 노일리 쉼다리는 길이 60m에 폭 1.2m 그리고 안흥 쉼다리는 길이가 30m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전주천 쉼다리

대상시설물인 쉼다리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과 덕진구 하가동을 가르는 전주천변에 조성되어 있다. 쉼다리 사업은 대상지인 삼천의 서곡고 자리에 1981년까지 존재하였던 쉼다리에 대한 원주민의 증언과 사진자료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이 지점은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산책, 걷기, 자전거타기 등)과 하천을 이용한 교통(도보와 자전거 등)이 요지로서 수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친수공간이기도 하다(김상욱과 김길중, 2010). 2008년 이래로 2011년 현재까지 9월말 설치 및 축제개최 그리고 5월말 철거를 반복하고 있으며, 쉼다리의 주요 재원은 길이 45m, 폭 1.5m, 높이 1.2m~1.8m에 이른다.

## 2. 연구방법

#### 1) 설문지 구성 및 설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항목들은 선행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크게 일반현황 조사, 쉼다리 인지도 조사 및 IPA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쉼다리 사업 인지도 조사의 경우 전주천에 쉼다리가 놓인 지 4년째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쉼다리가 전주천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 파악해 보았다. 주요 설문의 내용으로는 쉼다리를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는 지, 쉼다리사업이 지역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지 그리고 쉼다리를 전주천의 랜드마크라고 인식하는 지 등이다. 쉼다리 이용과 관련한 IPA 분석의 경우 쉼다리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기본으로 편의성, 안정성 및 기능성의 3개 그룹에 대하여 14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편의성에 대한 세부항목으로는 보행편의성, 정보제공 안내판, 자전거이용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안정성에 대한 세부항목으로는 쉼다리 난간설치, 쉼다리 폭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그리고 기능성에 대해서는 전주천 경관감상 및 생태자원 교육의 2개 항목으로 작성하였다. 응답의 형태는 리커트 5점 척도 상에 중요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와 성취도(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한다)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4월 23일에서 5월 22일까지 이용자들이 많은 주말 오후를 중심으로 쉼다리의 하천 양안 입구에서 쉼다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 추출방법의 하나인 편의 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 대상은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조사하였으나, 10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전체 설문지 279부 중 미응답 항목이 있는 등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설문 267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방법

선정된 267부의 유효설문에 대하여 SPSS 18.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 및 MS Excel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기법은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와 성취도 항목의 내용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중요도와 성취도의 시각적 표현을 위하여 산점도(scatter graph)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3%(115명), 여성이 57%(152명)이었으며, 40대 23.6%(63명), 50대 23.2%(62명) 및 30대 17.6%(47명)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전주시 총 33개 행정동 가운데 17개 동의 주민이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쉼다리가 인근지역 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반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쉼다리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서신동, 송천동 등의 주민들이 84.6%를 차지하여 인근주민의 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2. 쉼다리 이용행태 및 인지도 조사

1) 쉼다리 이용행태 조사

표 1. 설문표본의 일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15	43
	여성	152	57
연령	10대	12	4.5
	20대	35	13.1
	30대	47	17.6
	40대	63	23.6
	50대	62	23.2
	60대	31	11.6
	70대	17	6.4
거주지	서신동	102	38.2
	송천동	59	22.1
	덕진동	30	11.2
	진북동	18	6.7
	효자동	17	6.4
	팔복동	14	5.2
	기타(인후동의 10개동)	31	11.6

쉼다리의 주 이용행태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운동 또는 산책 시 이용이 82.8%(221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통행 및 이동 11.9%(32명), 출퇴근 2.2%(6명), 기타 2.2%(6명), 만남의 장소 0.9%(2명)로 나타났다. 쉼다리 이용빈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주일에 1~2일이 46.4%(124명), 3~4일 이용이 25.5%(68명), 5~6일이 13.1%(27명),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가 10.1%(27명)로 나타났다. 이에 쉼다리의 주 이용자는 서신동 및 진북동 지역주민들로, 운동이나 산책 시에 일주일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쉼다리사업 인지도 조사

전주천 여울목 쉼다리의 사업 주체를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었다는 답변이 37.1%(99명),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5.5%(68명), 전주시에서 만들었다 19.1%(51명), 시민들이 만들었다 18.3%(49명)로 나타났다. 설문답변자의 49.4%가 쉼다리가 위치한 서신동과 덕진동 주민들이지만 쉼다리가 민관협력을 통해 조성된 사례임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37.1% 정도이며, 잘 모르거나 전주시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이 44.6%에 이르고 있어 쉼다리 사업 자체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주시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쉼다리 축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축제는 알고 있으나 참여한 적은 없다가 45.7%(122명), 모르고 있다가 43.1%(115명),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5%(28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10.5% 밖에 되지 않으며, 축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43%에 이르고 있어 쉼다리농기 사업과 연계된 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3) 쉼다리 인지도 조사

전주천에서 쉼다리가 지닌 위상에 대하여 리커트척도 중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쉼다리를 전통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48.3%(129명), 보통이다 25.1%(77명), 매우 그렇다 16.9%(45명), 그렇지 않다 9.7%(26명)로 나타나고 있어 쉼다리 이용자들은 대부분 쉼다리를 농촌마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쉼다리사업이 지역의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46.7%(125명), 보통이다 32.6%(87명), 매우 그렇다 12.4%(33명), 그렇지 않다 7.5%(20명)로 나타나고 있어, 정기적으로 쉼다리를 설치하고 철거하며 축제를 벌이는 사업 자체가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쉼다리를 전주천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이다 34.8%(93명), 그렇다 30.7%(82명), 그렇지 않다 28.1%(75명), 매우 그렇다 6.4%(17명)로 나타나고 있어 쉼다리가 전주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물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보다 명확한 장소성 부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주천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시설로는 교동의 한벽당과 한옥마을과 서학동을 잇는 남천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여울목 쉼다리 및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서부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우기 시에 쉼다리 철거에 대해 불편함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36.3%(97명), 그렇지 않다 23.1%(62명), 보통이다 19.9%(53명), 매우 그렇다 16.1%(43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쉼다리 이용행태에 따라 그 응답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쉼다리를 운동이나 산책 시 활용하고 있으며, 쉼다리의 철거는 주민들에게 일정부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울목 쉼다리의 IPA 분석

1) 측정척도의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주천 여울목 쉼다리 이용에 있어 중요도와 그에 따른 성취도 조사를 위하여 14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들 측정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중요도가 0.8529, 성취도가 0.8922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0.8~0.9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측정척도를 연구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IPA 분석

표 2. 여울목 쉼다리 IPA 분석 결과 정리표

II사분면 중요도 high - 성취도 low	I사분면 중요도 high - 성취도 high
4. 쉼다리주변 조정시설(휴게시설, 화장 등) 8. 쉼다리 난간 설치 9. 쉼다리의 폭 12. 경교안내판 및 일몰 후 통제시설	3. 쉼다리 안내판 6. 쉼다리와 주변경관 어울림 7. 전주천 연결로 접근성 13. 전주천 경관감상 편의성 14. 생태자원 교육 및 감상 편의성
III사분면 중요도 low - 성취도 low	IV사분면 중요도 low - 성취도 high
2. 계절에 따른 한시적 이용 5. 쉼다리 자전거 이용 11. 쉼다리의 적정 흔들림	1. 보행의 편리성 10. 쉼다리의 적정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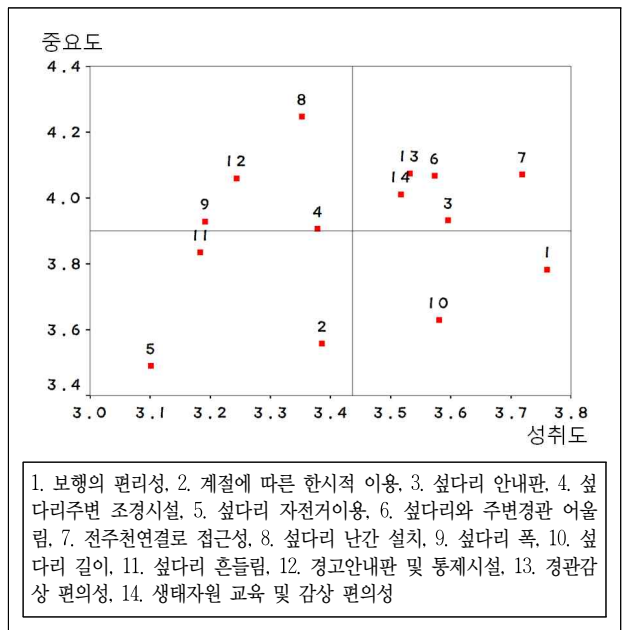


그림 2. 쉼다리 이용에 대한 IPA 그래프

여울목 쉼다리가 앞으로 하천의 양안을 이어주는 교량이라는 실용적인 측면과 함께 전주천의 전통문화시설로서 그리고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또한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IPA 산점도 그래프를 작성하였는데, 그래프의 중심점은 위에 항목들의 분포가 각 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던 중요도와 성취도 평균값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나타내었다(그림 2).

본 연구에서 제I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것들로 '안내판', '경관 어울림', '연결로 접근성', '경관감상 편의성' 및 '생태교육 편의성' 등 5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현재만큼의 관리가 유지될 경우, 기초성된 쉼다리만으로도 이용 성취도가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울목 쉼다리의 위치는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식생, 수생식물, 조류 및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쉼다리를 전주천의 생태자원 교육 및 감상을 위한 관찰 데크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쉼다리 양



안 입구에 쉼다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쉼다리 다릿발을 이용하여 문주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쉼다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요도-성취도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쉼다리 이용 시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은 항목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우선적 시정이 필요한 항목들로서 '쉼다리 난간', '쉼다리의 폭', '경고안내판 및 통제시설' 그리고 '쉼다리 주변 조정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중요도는 매우 높으나 성취도는 가장 낮은 항목으로 쉼다리의 난간을 들 수 있다. 원래 쉼다리에는 난간이 없으나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울목 쉼다리의 경우 밧줄을 이용한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본 평가 결과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한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쉼다리의 폭원과 관련하여, 현재 폭원은 1.5m로서 보행자간 교행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자전거와의 교행 시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며, 향후 쉼다리 재설치시에 또는 타 지역에 쉼다리를 조성할 경우 폭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쉼다리 이용자들은 쉼다리를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주천의 랜드마크라고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쉼다리가 단순히 운동과 산책 시 하천을 건너기 위한 교량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다른 의미부여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쉼다리가 놓이는 하천 양안에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장식벽 등을 설치하여 쉼다리를 포함한 전주천의 옛 모습 사진 등의 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거나 쉼다리 주변에 출현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안내판을 마련한다면 쉼다리를 단순한 시설물로 인식하기보다는 전주천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으며, 생태자원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광장의 조성은 전주천 및 삼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쉼다리를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사분면은 중요도 및 성취도가 모두 낮은 항목으로 '자전거 이용', '흔들림' 및 '계절적 이용'이 그 항목에 해당한다. 자전거로 쉼다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으나 자전거이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쉼다리 흔들림이나 일시적 철거로 인한 계절적 이용에 따른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사분면의 경우 중요도는 낮으나 성취도는 높은 항목으로 '보행편리성' 및 '쉼다리 길이'가 이에 해당한다. 쉼다리 이용자들은 기존 쉼다리 보행전반의 편리성과 현재 길이인 약 50m 수준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전주천에 조성된 전통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는 여울목 쉼다리에 대한 인식조사와 더불어 이용 성취도를 측정해 보았다. 이는 쉼다리 이용자들이 쉼다리를 단순히 통행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지 아니면 전주천에 문화와 전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시설로서 인식하고 있는 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쉼다리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또한 전통문화시설로서의 쉼다리 이용에 있어 성취도를 측정함으로써 실제 쉼다리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관련 설문조사는 2011년 4월 23일에서 5월 22일까지 여울목 쉼다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67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응답자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주 이용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주 이용행태는 쉼다리 반경 2km 이내이며, 접근성이 양호한 서신동, 진북동 지역주민들이 운동 또는 산책 시에 일주일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울목 쉼다리사업의 주체에 대해 민관협력사업으로 조성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37.1%인 반면, 잘 모르거나 전주시에서 조성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44.6%에 달하고 있어, 시민주도에 의한 거버넌스 사업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쉼다리 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10.5% 밖에 되지 않으며, 알고 있지만 참여한 적이 없다 45.7%, 모르고 있다 43.1%에 달해 쉼다리농기 사업과 연계된 축제 프로그램 및 장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전주천에서의 쉼다리의 위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쉼다리를 고향마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문화시설로 인식하였으며, 이 사업이 지역의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쉼다리를 전주천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쉼다리가 전주천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량시설물의 이미지를 벗고 전통문화 계승과 생태학습을 그 정체성으로 하는 상징성과 장소성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울목 쉼다리의 IPA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쉼다리 안내판, 주변경관 어울림, 연결로 접근성, 경관감상 및 생태자원 감상 편의성 등으로, 쉼다리라는 구조물이 주변경관과 어울리며 주변 경관의 감상 및 생태자원 감상을 위한 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는 낮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쉼다리 주변 조정시설, 쉼다리의 폭원, 경고안내판 및 통제시설, 및 쉼다리 난간 등으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바 있지만 쉼다리와 연계하여 전통문

화 및 생태교육을 담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쉼다리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추진된 독특한 단일 환경구조물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 쉼다리와 같은 전통문화 환경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단순히 일시적 체험을 위한 전시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 지역 또는 마을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서 정착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용문헌

1. 김상오(2006). 내장산 국립공원 자연관찰로의 자기안내식 해설판 디자인 속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2): 159-169.
2. 김상오(2005). 등산로 관리상태에 대한 구간별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비교. 한국임학회지. 94(6): 351-361.
3. 김상옥, 김길중(2010). 적극적 주민참여를 통한 전통문화시설 복원 성공요인 분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1): 93-101.
4. 김종선, 오교선, 김세빈(2010). 한밭수목원 산책로에 대한 이용객 평가: 중요도-만족도 분석(ISA)을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 99(3): 404-413.
5. 서용철, 심규원, 이주희(2002). 탐방객 특성에 따른 국립공원 시설물의 중요도-성취도 연구: 가야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6(1): 63-71.
6. 박상현, 광대영, 정병운(2008). 관광축제의 중요도-만족도 분석(ISA)과 인구통계적 비교평가: 보령 머드축제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2(4): 145-166.
7. 윤선영(2005). 중요도-성취도분석을 이용한 테마파크 이벤트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23: 235-255.
8. 이동근, 김보미(2010).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7(6): 39-47.
9. 조우, 유기준(2007). 소백산국립공원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과 전문가 평가에 관한 연구: 희방사-연화봉 구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1(1): 13-21.
10. 조우, 최송현, 유기준(2009a).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객의 환경해설 매체 이용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2): 127-134.
11. 조우, 유기준, 최송현(2009b).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숲길 보행시설에 대한 이용객 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1): 78-89.
12. Martilla, J. and J. C. James(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 13-17.
13. Taplin, R. H.(2011). Competitiv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an Australia wildlife park, Tourism Management, doi:10.1016/j.tourman.2011.01.020
14. Tonge, J. and H. Moore(2007).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for marine-park hinterlands: A Western Australia case study, Tourism Management. 28: 768-776.

원 고 접 수 일: 2011년 6월 28일

심 사 일: 2011년 7월 18일 (1차)  
2011년 8월 9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1년 8월 16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